



# 매일 새벽 3시 이웃을 위해 잠깬다

신문 배달로 이웃돕는  
공무원 김동준·박금희 부부



남 돕겠다는 일념으로 골목길 누빈지 10년  
배달 수입 50~70만원 전액 불우이웃에 보시  
투병중이던 부인의 빈자리 아들이 채우기도  
〈금강경〉 사경은 신문배달의 힘

◇10년동안 어김없이 새벽 3시엔 일어나 나란히 신문배달에 나서서 김씨 부부.



11월 1일 새벽 3시, 김동준(56, 마산시청 주택행정과 계장), 박금희(45)씨 부부는 어김없이 잠을 깬다.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은 뒤, 남편은 자전거를 타고 아내는 바구니가 실린 손수레를 끌고 신문 지국을 찾는다. 남편과 아내가 배달하는 신문 부수는 500부, 자전거와 바구니에 신문을 가득 채우고 3시간 동안 꼬박 발품을 팔아야 하루 배달이 끝난다. 남편은 새벽 운동을 겸한 이 작업이 끝나야만 출근한다. 신문 배달로 버는 수입은 월 50~70만원. 이 수입 전액은 불우이웃을 돕는데 쓴다. 벌써 10년째, 새벽 3시엔 어김없이 일어나 13종이나 되는 신문을 배달하는 이들 부부의 삶을 들여다 본 사람들은 "대단해요~!"라는 감탄사를 연발한다. 한 TV 개그프로그램에서부터 유행어가 된 "대단해요"라는 수식어가 절로 따라다니는 이들 부부를 만나기 위해 10월 31일 마산을 찾았다. 매일 스님들처럼 새벽에 일어나야 하는 김씨 부부는 보통 저녁 8시경에 잠자리에 든다. 그러나 이날 김씨 부부는 저녁 잠을 포기하고 10년간의 숨겨둔 이야기를 풀어 내 주었다. 김씨 부부가 신문 배달을 시작한 것은 94년 11월, 김씨가 청백봉사상을 받게 된 것이 계기였다. 오랜 관행으로 굳어 있던 출장 공무원 교육신고제를 폐지하고 그 비

율을 통장이체 시키는 등 행정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 김씨는 전국에서 16명의 공무원을 뽑는 청백봉사상을 받은 후 6급으로 승진하고 5개국 해외 연수를 다녀오기도 했다. "내가 한 일에 비해 보상이 너무 과분하다는 생각이 들어, 아내와 의논 끝에 배달을 시작한 겁니다." 아내도 무뎠음이 남편의 뜻에 동의했고 신문 배달이 시작됐다. 신문 배달을 시작한 후, 하룻밤을 자야 하는 행사는 모두 불참할 수밖에 없었고, 여행은 엄두도 못 냈다. 심지어 마음 놓고 아플 수도 없었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든 것도 아닌데, 단지 남을 돕겠다는 마음 하나로 새벽 단잠을 깨고 하루 세 시간씩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고 골목길을 뛰어다니길 10년. 그동안 이들 부부의 도움으로 삶의 희망을 되찾기 시작한 가정은 나날이 늘어갔다. 뽕소니 사고를 당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정에 5백여 만원을 들여 구두 수선소를 마련해 주었고, 딸이 가출한 뒤 차매에 걸린 노모와 함께 살고 있는 독거노인 신모씨에게는 매달 20만원의 생활비를 보조했다. 전신마비 증세를 아들 교육이 막막해진 가정에 매월 30만원씩, 3년 동안 지원하고 아들을 지인(知人)의 회사에 취직시켜 경제적 지립을 도왔다. 한 가정이 살만하

면 또 다른 가정에 인연이 닿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소식도 끊이지 않았다. 그렇게 이웃을 돕는 기쁨으로 보시행의 고단함을 잊어 갈 때, 위기가 닥쳤다. 신문 배달 4년째에 접어들던 97년, 부인 박씨가 자궁경부암에 걸린 것이다.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한 후, 부산과 마산을 오가며 간호하고 새벽에는 부인 뒤편까지 신문을 배달해야 했던 김씨의 고통은 커져만 갔다. 고된 끝에 신문사 지국에 휴일자를 구하는 대로 그만 두겠다고 통보했다. 19살에 시집와서 13평 아파트에 살면서, 우유배달도 마다 않고 농어인 시누이의 아

이까지 공부시킨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은 그야말로晴天霹靂이었다. 그런데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던진 한마디에 모든 것이 반전됐다. "김 선생님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기에 이렇게 초기에 병을 발견해서 완치할 수 있는지, 기적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시 지국으로 전화를 걸었다. 보름동안 입원 치료를 받는 아내를 대신해 당시 대학교 1학년이었던 큰아들이 신문배달에 나서도록 했다. 고 3때부터 배달을 돕곤 했던 장남 성수는 엄마의 빈 자리를 잘 채워주었다. "아이들이 참 고마워요. 부모가 신문배달

한다는 것을 부끄러워 할 수 있는 나이였던 데도 방학 때면 구역을 나눠 신문배달을 하고, 그 돈으로 제 포대 장아이들이 있는 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곤 했어요." 그렇게 한 고비를 넘기고 나니 천둥 번개가 치는 날, "미친 것 아니냐" "죽으려고 환장했다"는 소리를 들어가며 배달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제사가 많은 종가집이라 새벽 두시에 잠이 드는 일이 허다해도 구독자들의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 김씨가 열 대째 자전거를 바꾸고 아내의 손수레가 열 대째 부서져 나간 10년 동안 배달로 번 수입 9천여 만원은 고스란히 이웃에게 전해졌다. 그것도 모자라 '아름다운 가정상' 부상으로 받은 상금 1백 만원을 내놓으며 반사회를 통한 모금 운동에 나서고, 김씨가 설외부장 소임을 맡고 있는 마산시청불자회 회원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3년 전 창립된 마산시청불자회와 함께 인도의 빈곤 아동 돕기에 나서 생필품과 의류 5천여 점을 전달, 인도 수자타아카데미 교장이 직접 시정을 방문해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때 불자로서의 기쁨은 더욱 남달랐다. "지금 생각해보니 참 놀라워요. 할 때는 힘든 줄도 모르고, 조금이라도 세상에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했는데..." 남편의 말에 둥근 상을 앞에 놓고 <금강

경>을 사경(寫經)하며 한동안 말이 없던 아내가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요. 그리고 도움을 받은 분들이 보답을 하려고 먹을 것도 주시고 오히려 많은 것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기쁘죠." "대단해요"라는 수식어는 이들이 하고 있는 신문배달이나 선행보다는, 그 모든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온 이들의 마음 앞에 붙여진 것임을 알았다. 요즘 아내는 <금강경> 사경에 흠뻑 빠져 있다. 지난 2월에 돌아가신 시어머나가 사경 하던 상을 그대로 물려받아 <금강경>을 쓰고 있다. <금강경> 사경 병풍을 직접 만들겠다는 원을 세운 박씨는 "사바세계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경전에 실려져 있어요. 이 경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실천하다 보면 나와 이웃의 고통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불제자로서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지요." "신문 배달하는 힘은 이런 원력에서 나온다"고 힘주어 말하는 김씨 부부. 신문배달을 마치고 돌아 올 때는 언제나 노래를 부르며 돌아온다는 부부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퇴직 후에도 신문배달과 이웃돕기를 계속 할 것이다. 마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o@buddhapia.com

##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대학원생 모집

국내 최초 유일의 불교전문대학원인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인가)가 2004학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I. 모집 학과 및 인원

1. 모집학과 : 불교학과 - 불교학 · 사회복지학 · 명상학 전공 · 상담심리학과 - 상담심리학 · 자아초월상담학 · 요가치료학 전공
2. 모집과정 및 인원 : 석사과정 : 00명, 연구과정 : 약간 명

### II. 지원자격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
2. 학부전공과 상관없음

### III. 전형일정

1. 원서교부 및 접수
  - 기간 : 11. 10(월) ~ 11. 20(목)
  - 장소 : 본교 행정실 또는 홈페이지(www.sgsb.ac.kr)
2. 전형일시 : 2003. 11. 22(토) 10:00
3.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 IV. 제출서류

1. 입학원서 1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사진첨부)
2.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3.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부
4. 자기소개서 1부

### V. 전 형 료 : 50,000원

### VI. 합격자 발표

1. 일시 : 2003. 11. 27(목) 10:00
2. 장소 : 본 대학원대학교 행정실 ☎(02) 808 - 3321

### VII. 특 전

1. 불교학과(불교학 · 사회복지학 · 명상학전공) 입학생 중 우수자에게는 학위취득시까지 수업료 전액 또는 반액 장학금 지원
  - ※ 박사과정 신설시(2004. 9. 1) 박사과정 불교학전공 학생에게는 연구비 지원
2. 각종 자격증 취득 가능 : 명상지도사, 상담심리사, 요가치료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불교상담사 등

※ 상담심리학과전공자는 졸업시 한국상담대학원협의회 공인 '상담사(2급)' 자격증 발급  
※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대학교 행정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2) 808-3321, 6582 Fax (02) 808-6581  
주소 : 153-83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38-2



### 회원모집

### 안양 보장사 영각당(납골당)

- 안양유원지 입구에 위치하여 서울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 믿을 수 있습니다.
- 보장사 영각당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교육부인가 전문대학원)와 보문중·고등학교(대전), 안양시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이사장·주지:전덕해) 소속의 믿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 수익금은 전액 교육사업과 사회복지사업에 투자됩니다.
- 최고의 시설을 자랑합니다.
- 교통이 편리합니다. (전철 1호선 권역역 도보 10분)
- 주차가 편리합니다. (자체주차장과 바로 앞 공영주차장 600대 주차가능)

### 영각당 분양안내

단의 종류	위 수	이용가격	위 수	이용가격
개인단	1위	250만원 ~ 300만원	12위	2,500만원
부부단	2위	450만원 ~ 500만원	20위	4,000만원

※ 이용가격은 영구보존 기준 가격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40-10

Tel (031) 471-3322, 3442 Fax (031) 471-3488

서울사무소 :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반포로50길 3동 504호

Tel : 02-534-4444 www.bojangsa.co.kr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